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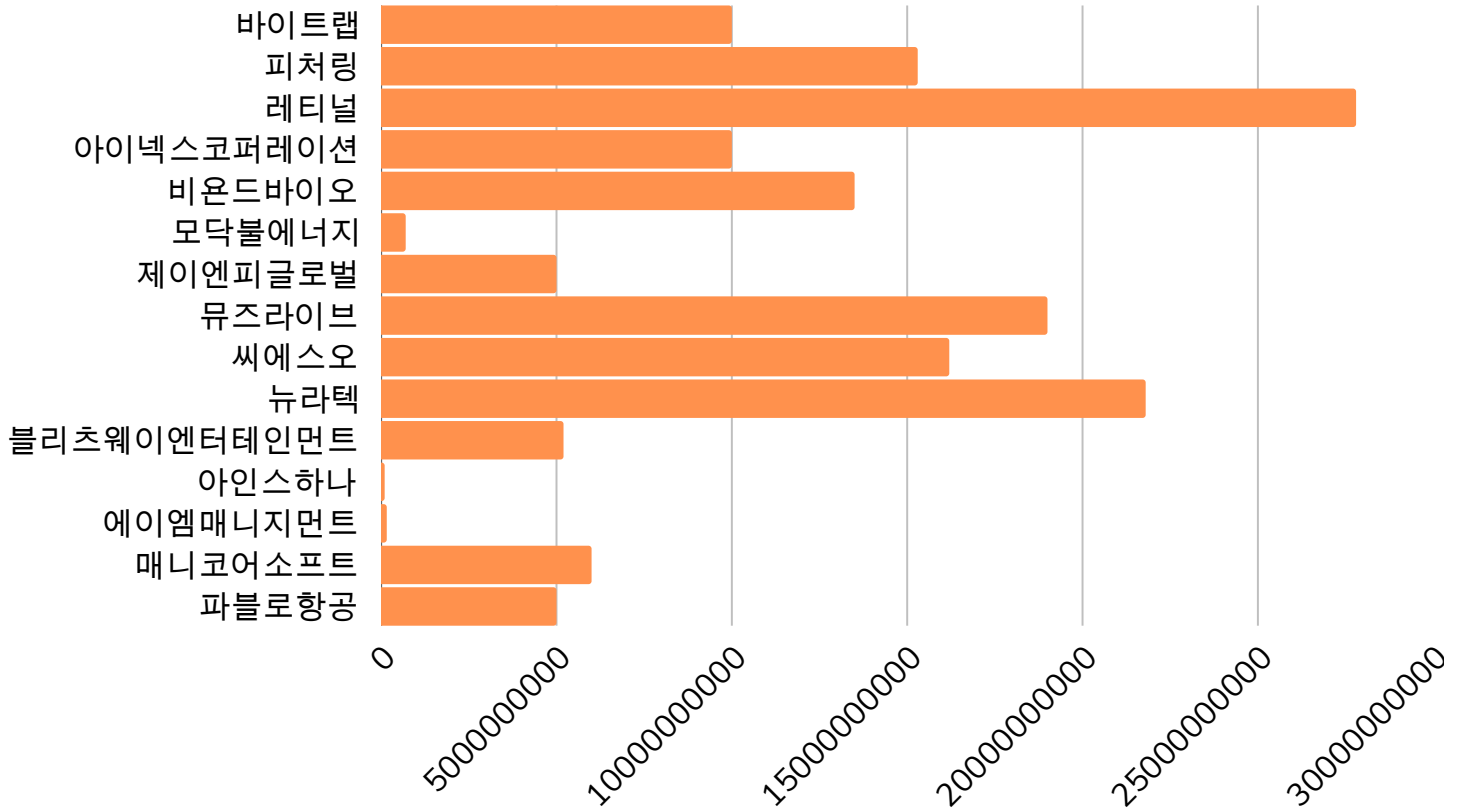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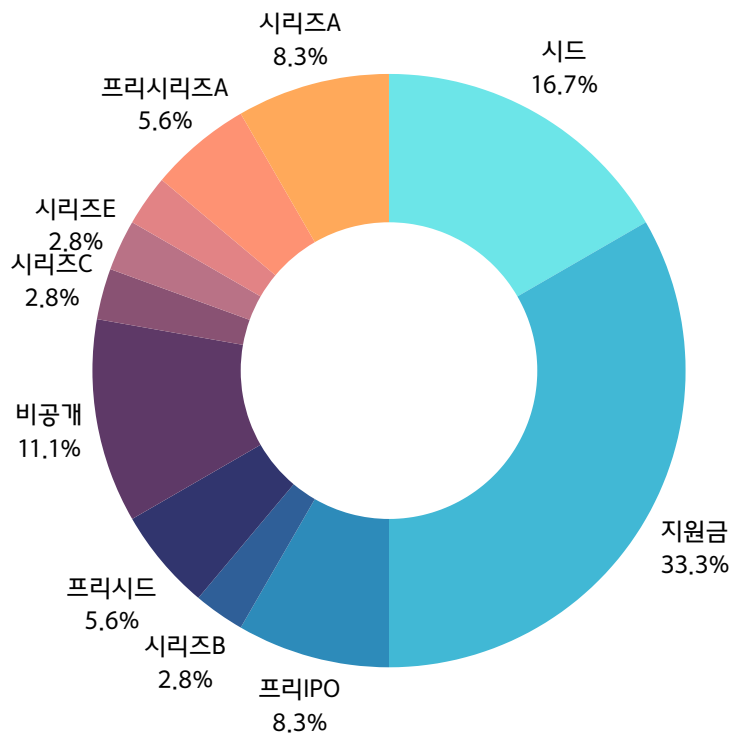
2026년 5월 18-22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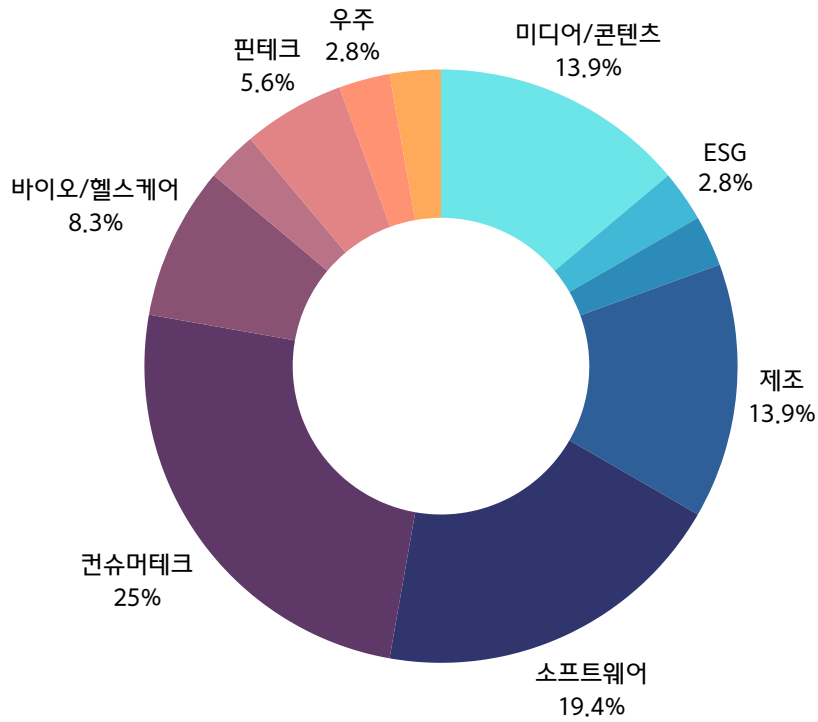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5월 18~22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36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4개 기업이 1,556억 6,000만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역시 팁스로 대표되는 지원금이 33.3%로 가장 높았고 시드 16.7%, 시리즈A와 프리IPO가 각각 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초기부터 후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인 게 눈길을 끈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 컨슈머테크 25%에 이어 소프트웨어가 19.4%, 제조와 미디어/콘텐츠가 각각 13.9%로 뒤를 이었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주요 투자 유치 기업으로는 AI 글라스 광학 모듈 기업인 레티널이 278억원 프리IPO 투자를 유치했고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뉴라텍 역시 218억원 프리IPO 투자를 유치했다. 키트앨범 제작 기업인 뮤즈라이브는 190억원 시리즈D 투자를, 글로벌 SNS 데이터 기업인 피처링이 153억원 시리즈B 투자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피처링 : 153억원 시리즈B

*featuring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시리즈B 투자 라운드에서 153억 원을 확보하며 누적 투자액 220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기존 투자사인 스틱벤처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하나벤처스, 키움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새롭게 참여했다. 2019년 설립된 피처링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엔진 '피처링 AI'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과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며 1만 6,000여 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96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금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동화를 지원하는 버티컬 AI 에이전트 기술 고도화와 인재 확보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한·일 크로스보더 마케팅 캠페인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 인수합병도 검토 중이다. 장지훈 대표는 독보적인 데이터 기술력을 강화해 글로벌 마케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이트랩 : 100억원

BiTELAB

브랜드 커머스 기업 바이트랩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100억 원대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 투자자로, CJ올리브영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2020년 출범한 바이트랩은 지난 5년간 외부 투자 없이 자체 브랜드 사업만으로 성장해왔으며, 자회사 포함 2025년 연매출은 약 600억 원에 달한다. 회사는 헤어케어 브랜드 '릴리이브', 스킨케어 브랜드 '색동서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르너'를 운영 중이다. 특히 릴리이브는 독자 성분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앞세운 '그로우턴' 시리즈로 미국 아마존 헤어케어 카테고리에서 성과를 내며 북미·아시아·중동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투자금은 차세대 전략 상품 연구개발, 비즈니스 인프라 고도화, 핵심 인재 확보에 집중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외에서 30명 이상의 인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조용훈 대표는 이번 투자가 브랜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계기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K-소비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레티널 : 278억원 프리IPO

LetinAR

AI 클래스 광학 모듈 전문기업 레티널이 프리IPO 라운드에서 278억 원을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 625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투자에는 한국산업은행, 대성창업투자,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롯데벤처스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6년 설립된 레티널은 스마트글래스 핵심 부품인 광학 모듈을 자체 기술로 설계·제조하며, 독자 기술인 핀틸트 (PinTILT™)와 핀미러(PinMR™)를 통해 기존 웨이브가이드 방식 대비 경량화·고효율·양산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플라스틱 사출 기반 렌즈 구조로 원가 경쟁력도 확보했으며, IR52 장영실상 수상과 혁신아이콘 기업 선정으로 기술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사업화도 활발하다. 일본 NTT, 다이나북과 스마트글래스 양산을 진행 중이며, 스위스 AR 헬멧 기업 에이스 라이더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스마트글래스 시장은 2025년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번 투자금은 광학 모듈 연구개발 고도화와 생산 능력 확대, 중국·미국·유럽 고객사 확보에 집중될 예정이다. 김재혁 대표는 AI 시대 필수 디바이스로 자리 잡을 스마트글래스 시장에서 핵심 부품 공급사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이넥스코퍼레이션 : 100억원 시리즈C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아이넥스코퍼레이션이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며 약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가 참여해 주주단을 구성했다. 특히 유온인베스트먼트, SW인베스트먼트, 킹고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등 복수의 기관이 합류하면서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투자 구조는 신주와 구주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아이넥스는 자금 조달뿐 아니라 투자자 네트워크 확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수요가 맞물리며 아이넥스의 향후 사업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온드바이오 : 135억원 시리즈E



항암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업 비온드바이오가 5년 만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오롱인베스트먼트와 지애펍벤처투자 등 복수 기관이 참여해 총 135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 이번 라운드는 기업가치를 약 11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2021년 투자 당시 대비 주당 단가가 약 40% 낮아진 수준이다. 비온드바이오는 과거 대규모 모험자본을 유치하며 주목받았으나 IPO 지연으로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몸값을 낮추는 전략을 통해 다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는 확보된 자금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에 속도를 내며 기업공개 재추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닥불에너지 : 7억원 시드



히트펌프 구독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닥불에너지가 슈미트, 소풍벤처스, 쉐리드엑스로부터 총 7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서울대 출신 에너지 전문가들이 2025년 창업한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히트펌프 10년 구독모델을 실증하며 재생열에너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치·운영·모니터링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0여 개소의 소상공인,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 중이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외부 공기에서 열을 끌어와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친환경 설비로, 초기 설치비는 보일러 대비 5~10배 높지만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350만 대 보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모닥불에너지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ESG 투자자를 연결하는 에너지 소득 공유형 구독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창업진 멤버들은 국내 최초 RE100 태양광 구독서비스를 비롯해 다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제이엔피글로벌 : 50억원



딥테크 초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제이엔피글로벌이 위드텍 유승교 회장으로 부터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했다. 반도체·에너지 환경 모니터링 기업 위드텍을 창업해 코스닥 상장까지 이끈 유 회장의 참여는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 대전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제이엔피글로벌은 틱스·립스·모태펀드 운영사로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딥테크 기술창업 스튜디오 등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여 개 기업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양사는 스타트업 컴퍼니빌딩과 인큐베스팅 등 미래 신사업 모델 기획에 집중할 계획이며, 제이엔피글로벌은 2030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뮤즈라이브 : 190억원 시리즈D

MUZLIVE

키트앨범 제작사 뮤즈라이브가 190억 원 규모의 시리즈D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에서 산업은행이 100억 원을 투입하며 핵심 투자자로 참여해 라운드의 중심을 이끌었다. 뮤즈라이브는 K팝 시장에서 검증된 키트앨범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음악 플랫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음악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참여는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후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뮤즈라이브는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키트앨범의 글로벌 유통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음악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에 집중할 전망이다.

씨에스오 : 162억원 시리즈A



초고해상도 위성 광학카메라를 개발하는 우주 스타트업 씨에스오가 16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갖췄다. 모기업 컨택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최영완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기존 투자사와 미래에셋 계열 등을 포함한 신규 투자사가 참여했다. 씨에스오는 소형·경량 구조에서도 초고해상도를 구현하는 광학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저궤도·초저궤도 위성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 개발 사업과 해외 공급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위성카메라 제조를 넘어 AI 기반 영상 분석, 객체 탐지, 재난·안보 모니터링 등 데이터 활용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우주산업이 고빈도 관측과 데이터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초고해상도 광학 시스템과 어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영완 대표는 독립 체제 전환을 계기로 민간 우주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EO·재난감시·국방 분야로 사업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뉴라텍 : 218억원 프리IPO



팍리스 반도체 기업 뉴라텍이 총 218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라운드는 KB증권과 LB프라이빗에쿼티가 절반 이상을 책임지며 리딩 투자사로 참여했고, 나머지 금액은 큐이디에쿼티, 인라이트벤처스, 위드인인베스트먼트, 솔루엠 등이 분담했다. 업계에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분야에서 뉴라텍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투자 유치는 향후 기업 공개(IPO)를 위한 밸류에이션 제고와 사업 확장 기반 마련에 의미가 크며, 뉴라텍은 조달 자금을 통해 제품 개발 고도화와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 52억원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가 음악 레이블 K LA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일본 반다이남코로부터 약 52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했다. 투자 이후에도 K LAP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며,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반다이남코의 네트워크가 더해지면서 음악 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블리츠웨이는 지난해 K LAP 인수 이후 음악 제작과 공연 사업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투자로 앨범 제작·해외 공연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확대된다. 도경수 합류로 배우와 음악을 통합 운영하는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드라마·영화 제작과 음악 사업 간 시너지, OST·공연·아티스트를 잇는 밸류체인 강화, 양사가 보유한 피규어·컬렉터블 사업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블리츠웨이는 주지훈·천우희·도경수·우도환 등 배우 라인업을 기반으로 매니지먼트와 음악 레이블을 함께 운영하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아인스하나 : 1억원 시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스타트업 아인스하나가 메이크공육사와 결성한 올라운더유니언 로컬임팩트 펀드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FC 바이에른 뮌헨의 제주 방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의 확장성과 글로벌 스포츠 IP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며 성사됐다. 아인스 하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국내 독점 프로모션 권한을 확보해 2026년 8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친선경기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이를 기반으로 R&G, Apertura Sports 등 해외 파트너와 연계해 제주를 아시아 유소년 축구 육성 및 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업계는 이번 경기를 19년 만의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주목하며, 김민재 등 스타 선수 출전 시 수만 명의 관광객 유입과 1,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메이크공육사는 1차 투자에 이어 도민 참여형 2차 조합을 준비 중이며, 지역 투자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아인스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주 스포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이엠매니지먼트 : 1억 6,000만원



AI 기반 퀀트 솔루션 기업 에이엠매니지먼트가 루스벤처스로부터 본계정 첫 투자처로 선정됐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루스벤처스는 22일 에이엠매니지먼트에 1억6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조합을 통한 방식이 아닌 본계정을 활용한 첫 사례다. 에이엠매니지먼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퀀트 솔루션을 통해 운용자산 2000억 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입증한 기업으로, 이번 투자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루스벤처스의 본계정 투자 방식은 향후 전략적 투자 행보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에이엠매니지먼트는 이를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매니코어소프트 : 60억원 시리즈A



액체냉각 기반 AI 인프라 기업 매니코어소프트가 최근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인터베스트, 타임폴리오캐피탈이 참여했다. 매니코어소프트는 고성능 컴퓨팅(HPC)과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고발열 GPU 서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액체냉각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번 투자로 회사는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고발열 GPU 냉각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업계는 이번 사례를 통해 AI 인프라 분야에서 액체냉각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블로항공 : 50억원 프리IPO



드론 물류 및 항공 기술 기업 파블로항공이 50억 원 규모의 브릿지 투자를 유치하며 IPO 재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조성한 케이프 스카이드펜스 신기술투자조합이 39억 원을, 유진투자증권이 10억 원을 각각 참여했으며,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구조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10억 원 규모의 프리IPO 라운드를 마친 지 반년 만에 성사된 투자로, IPO 일정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블로항공은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두 기관으로부터 BBB 등급을 받아 요건 충족에 실패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투자로 파블로항공은 자금 기반을 강화하며 상장 재도전과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주간 체크 포인트

모두의챌린지 이번엔 뷰티·플랫폼...최대 1억 지원=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챌린지 뷰티, 플랫폼 분야 프로그램을 6월 8일까지 이곳에서 모집하고 신산업 창업기업 25개사를 뽑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해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자금 최대 1억원 등을 지원한다.

2026년 5월 18-22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엠플로컴퍼니	스포츠 IP 라이프스타일	비공개	시드	더벤처스
리뉴어스랩	탄소 관리 SaaS	비공개	지원금	팁스
메이저맵	학과 진로 정보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팁스
레티널	AI 스마트글래스 광학모 듈	278억원	프리IPO	한국산업은행, 대성창업 투자, 코오롱인베스트먼 트, 에버그린투자파트너 스, 티쓰리벤처스, 지에 스에이프라이빗에쿼티, GSA, 케이프투자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오픈 워터인베스트먼트, NBH 캐피탈, 브로스인베스트 먼트, 글로몬파트너스, 신한캐피탈, 유니온투자 파트너스, 롯데벤처스
픽처링	소셜미디어 분석	153억원	시리즈B	스틱벤처스,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 베스트먼트, 하나벤처 스, 키움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IBK기업 은행
클론랩스	사용자 판단 예측 AI	비공개	시드	네이버D2SF
오르빗코리아	AI 네이티브 컨설팅펌	비공개	프리시드	매쉬업벤처스
헬리오스	반도체 박막 정밀 계측 장비	비공개	프리시드	파트너스라운지, 경북창 조경제혁신센터, 포스텍 홀딩스
아트라미	D2C 아트 커머스 플랫 폼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팁스
더선한	에이전틱 세일즈 AI 플 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바이트랩	브랜드 커머스	100억원	기타(비공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CJ올리브영
로민	다큐먼트 AI 에이전트	비공개	기타(비공개)	네이버클라우드

아웃오브셋	온디바이스 AI	비공개	시드	더벤처스
모닥불에너지	하트펌프 구독 서비스	7억원	시드	슈미트, 소풍벤처스, 스피리드엑스
백스다임	바이오 소재·백신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 팁스
트립닥터	외국인 의료관광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엑심플로우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설랩	온천수 기반 샤워필터 개발	비공개	시드	와디즈파트너스
아이넥스코퍼레이션	의료 AI 솔루션	100억원	시리즈C	유온인베스트먼트, SW인베스트먼트, 킹고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비온드바이오	항암제 치료제 개발	135억원	시리즈E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지앤티벤처투자
제이엔피글로벌	딥테크 액셀러레이터	50억원	기타(비공개)	위드텍 유승교 회장
뮤즈라이브	키트앨범 제작사	190억원	시리즈D	산업은행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비공개	기타(비공개)	반다이남코
씨피엑스시스템즈	AI 가상물리시스템	비공개	지원금	팁스
큐투켓	광고 사전 기획 서비스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에이치솔루션즈	보조기기 전주기 관리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아인스하나	스포츠 스타트업	1억원	시드	올라운더유니언 로컬임팩트 펀드
스키퍼랩스	AI 자율지능 금융 엔진	비공개	프리시리즈A	에이티넘벤처스
뉴라텍	팹리스 반도체	218억원	프리IPO	KB증권, LB프라이빗에쿼티, 큐이디에쿼티, 인라이트벤처스, 위드인인베스트먼트, 솔루션

씨에스오	위성 광학 카메라	162억원	시리즈A	한국투자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 스, 컴퍼니케이파트너 스, 미래에셋캐피탈, 미 래에셋벤처투자, 뮤렉스 파트너스
파블로항공	드론 물류 및 항공 기술	50억원	프리IPO	케이프투자증권, 유진투 자증권
나눔비타민	디지털 복지 결제 인프 라	비공개	프리시리즈A	엠와이소셜컴퍼니
마이프차	창업 준비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답테크팁스
에이엠매니지먼트	AI 쿼트 솔루션	1억6000만원	시리즈A	루스벤처스
매니코어소프트	액체냉각 AI 인프라	60억원	시리즈A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인 터베스트, 타임폴리오캐 피탈
빅셀	이커머스 최적화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